영어는 발음이다! (1)

글 박정원(〈60일 완성 박코치 실전 영발음〉 저자)

한국인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진짜 이유는?

'영어는 발음이다'란 제목을 보고 읽으려는데 "한국인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진짜 이유는?"이란 질문이 주어지니 당황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비법을 찾아 이 지면을 펼친 독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발음 특강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웬 청취 이야기인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라. 20년 가까이 '영어밥'을 먹여 준 '박코치'라는 이름을 걸고 발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꼭 알려 드릴 테니 말이다.

"한국인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 무엇일까?"란 질문의 답을 함께 고민해 보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한국어와 영어는 문장의 구조가 다르다. 한국어와 영어의 주어와 술어의 위치가 다른 것 정도는 ABC를 아는 이라면 다 안다. 그럼 무엇이 또 다른가? 그렇다! 발음이 다르다. 그간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 다른 문장 구조와 발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법과 발음기호를 강조해 왔다. 영문법은 다른 문장 구조를 손쉽게 익히는 과정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문법 교육량은 세계 최대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간을 들여 공들여 가르친다. 그런데 이런 영문법 교육 덕택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가? 그렇지 않다. 2009년 미국 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영어 평가에서 한국은 121위였다. 제법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이들도 '듣기'와 '말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 영어에 대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은 "잘 안 들린다." "못 알아듣겠다."이다. 영어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시험 문제는 잘 풀지만, 원어민과 대화해야 할 때는 손사래를 치며 도망치기 일쑤다.

나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듣기 교육(=말하기 교육=발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영어 문장을 들려주면 대부분 못 알아듣겠다고 한다. 그러나 똑같은 문장의 글을 보여 주면 상황이 다르다. "아! 이런 이야기였어?"라며 손뼉을 친다.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는 쉬운 문장이었던 것이다. 듣기 교육이 없던 교육의 피해를 톡톡히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없었나를 살펴보자.

첫째, 영문법을 강조한 교육 속에서 실제 영어를 말하거나 활용할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다. 둘째, 영어의 정확한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글자로는 아는 영어도 소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보자. "한국인이 영어를 잘 알아듣기 위한 좋은 방법은?" 답은 바로 영어의 음가를 제대로 파악해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영문법 학습이 아닌 발음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으로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발음 훈련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들리는 대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발음 훈련

앞서 강조했듯 영어의 발음은 한국어의 발음과 다르다. 그런데 이 발음이 어떻게 다르냐? 나는 영어의 발성과 한국어의 발성을 음악에 비유한다. 한국어가 꽹과리라는 하나의 악기를 사용하는 음악이라면, 영어는 플루트, 바이올린, 피아노, 오보에를 다 사용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분류해 발음하지만, 영어는 두성, 복성, 비성, 흉성까지 사용해야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영어에서 나오는 다양한 발음(발성)을 잘 듣고 잘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정확한 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일례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R과 L을 구분해 듣고 구분해 말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이 두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
인터넷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바나나'라고 검색을 해보라.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어."라는 〈Lucky〉의 한 구절이 검색될 것이다.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가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어."라고 들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다시 질문을 해본다. 왜 우리는 영어를 우리식대로 들어 버리는 것일까? 답은 이렇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R과 L을 구분해 들려주고 어느 연령까지 두 소리에

다르게 반응하는지(구분해 내는지) 실험했다. 겨우 생후 6개월까지였다. 이후로 아이들은 두 소리를 구분해 내지 못했다. 인간의 뇌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재조직화(retraining the brain)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들에게 R과 L을 구분하는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뇌가 모국어를 잘 익힐 수 있는 상태로 세팅되는 과정에서 R과 L을 구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뇌가 차단한 영어의 정확한 소릿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는 이 과정을 손쉽게 '발음 훈련'이라고 명명했다. 실상 발음 훈련의 목적은 원어민처럼 멋지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없는 영어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음 훈련을 해야 하는가?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듣기와 말하기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고 묻는다. 나는 준비된 답변을 해준다. "단연 말하기가 중요하다!"고 말이다.

한국인들은 영어를 공부할 때 듣기를 우선으로 하고 말하기는 나중으로 미룬다. 그래서 '발음 훈련' 같은 것도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된 후에나 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역으로 "잘 듣기 위해서 발음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유는 하나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소리는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어의 발성 원리(덩어리 현상과 기합) 익히기

본격적인 발음 훈련을 하기 전에, 어떤 원리로 발음 훈련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앞서 한국어와 영어를 음악에 비유하며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영어에는 한국어에는 없는 매우 많은 소리들이 있다. 때문에 한국인에게 영어의 소리는 매우 낯설다. 이 낯선 소리들을 무작정 따라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영어라는 산에 오르게 될지 알 수 없다. 영어의 발성 원리를 이해하고 한국어와 영어의 발음 차를 극복하는 발음 교정 훈련을 해야 한다.

영어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영어로 된 시트콤을 듣는 것보다 토익이나 토플 시험의 듣기평가를 푸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이다. 시트콤과 듣기평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발음의 정확성이다. 원어민과 일상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이들이 말하는 영어는 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각각의 단어가 매우 부정확하게 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원어민들은 영어를 쓸 때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연음, 축약, 탈락 현상이 이들의 발음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다. 연음이란 '하늘이'가 '하느리'로 소리 나는 것처럼 앞 음절의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의 첫소리로 오는 것이다. 축약이란 '좋고'가 '조코'로 발음되는 것처럼 두 형태소가 만나 한 음소나 음절로 되는 현상이다. 탈락이란 '가아서'가 '가서'로 되는 등의 두

개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만날 때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이다. 어렵다. 나는 손쉽게 이런 현상을 "영어는 덩어리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It's nice to meet you."를 한국인과 원어민이 발음한다고 해보자. 한국인은 '잇츠 나이스 투 미트 유'라고 발음하지만 원어민들은 '나이수밋챠' 정도로 발음한다. to는 발음되지 않는다. It's도 묻혀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덩어리(chunk)이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절반 이상의 상황이 이 덩어리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 영어 문장에는 강한 강세가 오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아주 약화돼 거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러 단어들이 한 단어로 들리기도 한다. 발음 훈련을 통해 이 덩어리 현상을 극복하면 영어가 훨씬 쉬워진다.

영어 발음의 특징 중 두 번째는 음의 고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말할 때 일정한 음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 강약이 별로 없고 각각의 소리도 아주 잘 구분돼 들린다. 그러나 영어는 아주 강한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 강약의 변주가 심한 데다 덩어리 현상까지 있으니 잘 알아들을 수 없다. 흡사 음악 연주와 비슷하다. 그렇다고 미리 겁을 먹을 건 없다. 원어민과 같은 강약의 억양을 익힌다면 영어 문장을 듣거나 말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연습으로 가능하다.

나는 영어의 덩어리 현상과 음의 고저가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박코치식 발음 훈련법'을 만들어 냈다. 바로 자음과 모음의 음소 단위 발음 훈련(PT, Pronunciation Training)과 덩어리 발음 훈련(CT, Chunk Training) 그리고 기합 훈련이다.

자음과 모음 PT(음소 단위 발음 훈련)

자음 훈련 5가지

- 비성(코감기 발성): [n], [m], [ŋ]
- 복성(물개 발성): [r]
- 두성(고음 발성): [l], [b], [v], [w]
- 흉성(저음 발성): [g]
- 무성: [p], [f], [t], [k], [s], [θ], [ʃ], [tʃ], [h]

모음 훈련 2가지

- 긴장 모음: [i:], [æ], [ou], [a], [u]
- 이완 모음: [i], [e], [ɔ], [u]

CT(덩어리 발음 훈련)와 기합

고음 기합

- 앗 기합(두성 기합)
- 음 기합(비성 기합)

저음 기합

- 얼 기합(복성 기합)
- 그 기합(흉성 기합)

다음 호에 연재할 위의 훈련들은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특징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며, 원어민과 같은 발음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게 해준다. 독자 여러분도 박코치식 발음 훈련을 통해 어렵다고만 느꼈던 영어 발음을 쉽게 이해하고, 더불어 영어라는 산을 쉽게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GMP